

<2022년 5월 25일 수요일말씀>

하나님과 일체 된 삶

[시대 성경]

사람이 누구든지 온전하기까지는 고통과 고생을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온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라. 고통이 없어지고 편안하리라.

하나님과 일체 되려면 깨끗하여라.

참으로 사랑해야 일체 되느니라.

일체 된 자는 온전한 자니라.

[마태복음 5장 47~48절]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19장 20~22절]

20.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로마서 7장 24~25절]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들이 언제쯤 고통이 끝나고 평안하게 사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전하게 살 때까지〉니라.

〈온전〉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일체〉 되면,

‘육’도 ‘영’도 고통이 끝나고 편하게 살게 된다.”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 다니엘 12장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 민족이 언제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미운 물건을 세운 때’인 688년부터

1260년이 지난 1948년에 해방되었습니다.

-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린 10대부터 어른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 언제 끝나냐고
한탄하며 괴로워합니다.

〈가난의 고통〉, 〈병의 고통〉, 〈자기에 대한 고통〉,

〈살아가면서 겪는 각종 고통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통〉부터 〈지옥 같은 고통〉까지 겪어 봤을 것입니다.

-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심정’ 이 타고, ‘애간장’ 이 타고, 그러다가 ‘인생’ 을 포기하고 죽기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중〉에 ‘기빠서 죽는 자’ 는 없습니다.

‘희망’ 에 불타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밀려오는 괴로움과 불안과 걱정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습니다.

-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 을 받고,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는 것’ 을 다 잃어서 ‘고통’ 을 받고,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끝이 난다.” 혹은
“세상에서 고통과 걱정 없이 살 자가 없다.”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통〉을 해소하며 살아갑니다.

- ▶ 어떤 자는 〈돈〉으로 ‘고통’ 을 해소하며 살아가고,
어떤 자는 〈명예〉로 ‘고통’ 을 해소하고 살아갑니다.

- ▶ 어떤 자는

〈결혼〉해서 살면 ‘고통과 걱정’ 이 해소된다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해서 다시 ‘고통’ 을 겪기도 합니다.

- ▶ 어떤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산의 사람’이 되어 외롭게 살아갑니다.

- ▶ 어떤 자는 ‘고통’을 안 받고 살기 위해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어하고, 세상을 다녀 봐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포기합니다.

- ▶ 어떤 자는 ‘걱정과 고통’이 온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다 놓고 보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 ▶ 어떤 자는 ‘고통’을 해소하고 ‘괴로움’을 잊고 살려고, <자기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 저마다 <자기가 찾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소’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어떤 것들>로도 <영과 육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곤고함, 걱정, 근심, 염려,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 세상에는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 <재력가>들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구원을 못 받고,
<육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해결하지 못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잘 먹고 잘살고,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해 그늘’을 맞고 끝납니다.

- 오직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명자’를 통해 전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행하여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 때,
<육과 영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고통’이 끝납니다.

-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면, ‘그에 해당되는 고통’이 끝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문제>를 다 풀고 <답>을 쓰면,
‘그에 해당되는 고통과 걱정’이 끝납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완성>되고 <온전>해지면,
‘그에 해당되는 고통’이 끝납니다.

-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온전>하여라. ‘육의 고통’이 사라지리라.

〈하나님과 일체〉 되어라. ‘영의 고통’ 이 끝나리라.

〈자기 인생의 고통이 있는 자〉는

〈온전〉하게 살아야 ‘고통 없이’ 살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땅〉에서도 ‘모든 고통’ 이 끝나고,

〈황금천국〉에서도 영원히 ‘고통 없이’ 살게 된다.” 하셨습니다.

-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죄〉를 안 지어야 ‘고통’ 이 없다.

〈죄〉를 지으면, ‘회개’ 하여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죄로 인한 고통’ 은 절대 없다.” 하셨습니다.

- 〈죄〉는 ‘생활 속’ 에 깔려있습니다.

〈생활〉하면 〈죄〉를 짓게 되니,

‘죄’ 를 분별하고 가려 버려야 됩니다.

- 생선 중에 〈복어〉가 있습니다.

〈복어의 알과 내장〉을 안 빼고 끓여 먹으면,

죽든지 ‘죽음의 고통’ 을 받습니다.

〈죄〉는 마치 ‘복어의 알과 내장’ 과 같습니다.

〈복어의 알과 내장〉을 빼내고 복국을 끓여 먹듯이,

<죄>를 빼내고 살아야 됩니다.

- <복어 한 마리>는

‘어른 33명을 죽일 수 있는 독’ 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이지요?

<죄의 독>은 더합니다.

<죄>에는 ‘지구 세상 80억 명을 다 죽이는 독’ 이 있습니다.

충격이지요?

그래서 꼭 <죄>를 빼내고 살아야 됩니다.

- <죄>를 버리지 않고 행하면,

<육>도 ‘사망권’ 으로 죽게 되고,

<영>도 ‘사망권’ 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됩니다.

이같이 <죄>는 ‘무서운 죄의 독’ 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죄>를 지으면,

<짓값>을 ‘죄지은 것에 천 배, 만 배’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 을 받아야 됩니다.

- <성령님>은 ‘정결의 존재자’ 입니다.

성령님은 “죄에 깨끗하게 살아라.” 하시며

최고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깨끗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기 때문입니다.

- 〈죄의 독성〉은 ‘지옥 불’ 보다 더 강합니다.

이를 알았으니,

저마다 〈자기 죄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함’ 이다.

〈죄〉를 그냥 두면 죄로 인해 ‘사망’ 으로 죽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로 말미암아 ‘죄’ 가 청산됩니다.

- 오늘 말씀을 받고,

꿈에 〈월명동 자연성전 산책길〉에

〈가시나무〉가 나 있고, 〈죽은 나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툼과 낫’ 으로 정신없이 잘랐습니다.

〈가시나무〉를 자르니,

〈가시〉가 ‘손 여기저기’ 에 박혀서 아팠습니다.

옆을 보니, 〈가시가 박혀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자〉도 있었고,

〈가시를 빨리 빼야 된다고 걱정만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선생님이 울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 소리〉를 듣고 ‘깊이 박힌 가시’가 빠져 나왔습니다.

그 옆에 “저도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하며 아파하는 자가 있어서
“너는 가시나무를 베지도 않았는데 왜 가시에 찔렸냐?” 하니,

“선생님이 벤 가시나무를 끌어 버리다 보니 찔렸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울며 기도해 주니,

그들도 “가시가 손에서 빠졌어요!” 했습니다.

- 〈섭리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꿈에서 같이 〈섭리사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특히 〈사명자〉와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 저마다 〈자기 기도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있지요?

▶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됩니다.

▶ 〈기도〉로 ‘인생들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 〈기도〉가 ‘신앙의 핵’입니다.

▶ 〈일반적인 것 열 개〉를 행한 것보다,
〈기도 한 개〉를 행한 것이 더 큼니다.

▶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사랑’도 뜨거워집니다.

▶ <기도>해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 하나님은 <청산유수>로 기도하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히 말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도와주셨는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항상 너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므로 <너>도 늘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금주’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같이 사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온전한 삶>, <하나님과 일체 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매일 끊이지 않고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